

# 금호고속 소유주 사모펀드, 김성산 대표 해임

### “금호고속 가치 훼손·매각 절차 방해... 해임 불가피”

### 금호아시아나 “절차 하자·주식매매계약 위반... 법적 대응”

금호고속 소유주인 IBK투자증권-케이 스톤 사모펀드(PEF)가 지난 12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불법 및 주식매매계약 위반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케이 스톤 PEF는 금호아시아나가 지

명한 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사모펀드 측은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아시아나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 절차를 방해해 해임이 불가피했다”며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금호고속 매각절차 방해를 주도하는 사내조직 활동을 방지했으며 PEF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매각 방해행위로 금호고속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금호터미널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금호아시아나 측은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이날 그룹 공식 입장을 내놓고, “대표이사 해임 건은 절차상 문제와 주식매매계약(SPA) 위반사

항으로 불법적 해임이기에 무효”라며 “그룹이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모펀드의 금호고속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고속의 대표이사 선임은 그룹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모펀드가 절차를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주주총회 관련, 무효 가져본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인수 유리한 입장”

### ‘인수전 흥행 실패에 대표이사 해임’ 분석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투자증권-케이 스톤 사모펀드(PEF)의 김성산 대표이사 해임이 인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대표가 금호아시아나 측 인물인 김 하지만, 금호고속이라는 단일 회사의 경영인으로, 그룹 차원의 인수 전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호아시아나는 사모펀드 측이 인수전이 흥행하지 못하자 이수를 위해 김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고속 매각은 절차가 진행되자 국내외 사모펀드 4~5곳이 예비입찰에 뛰어들면서 사모펀드가 희망하는 6000억 원대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포기 사례가 늘면서 현재는 MBK파트너스와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의 2파전 구도로 형성됐다. 김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가격 또한 개시 시점보다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현재 본입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고속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도하려는 사모펀드 측이 김 전 대표를 해임해 이수를 만들고, 관심을 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사모펀드는 내년 6월 청산을 앞두고 있다. 내년 2월 말까지는 우선매수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에 매각가를 제시해야 한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그룹은 매각될 때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유리한 입장”이라며 “최근 산업은행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그룹의 모태기업인 금호고속을 인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기아차 카니발·쏘렌토

### ‘한국색채대상’ 최고상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과 ‘올 뉴 쏘렌토’가 ‘2014 한국색채대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기아차는 16일 신형 카니발의 파우더 블루, 신형 쏘렌토의 임페리얼 브론즈 등 2가지 색상이 한국색채학회가 주최한 올해 한국색채대상에서 제품 부문 대상을 뒀다고 밝혔다.

컬러 디자인 전문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은 올 뉴 카니발에 대해 “안정적이면서도 깊이감 있고, 부드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연청색 계열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라고 평했다.

또 올 뉴 쏘렌토에 대해서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지닌 브라운 컬러를 차량에 과감히 입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특성에 맞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느낌과 도시 남성이 지닌 감성을 잘 살렸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



전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관 ‘북적’ 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농협 전남본부는 행사장 방문객에게 매일 홍보용 쌀 5000개씩 무료로 증정하는 등 홍보 마케팅도 전개했다.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년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전남 우수브랜드 쌀 전시홍보관에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와 수도권 소비자들 대거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 농협 전남본부는 행사장 방문객에게 매일 홍보용 쌀 5000개씩 무료로 증정하는 등 홍보 마케팅도 전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 가구당 부채 6000만원 ... 소득 늘었지만 쓸 돈이 없다

### 지난해 4600만원 벌고 3100만원 지출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부채가 6000만원에 달하는 등 서민 가계가 빛의 나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 여력은 축소되고, 이는 또 다시 경기부진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5994만원으로 전년 동일

(5858만원)에 비해 2.3% 늘어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당 부채가 1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경기 부진이 장기화 되면 금융부실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가계부채 중 금융부채는 4095만원으로 68.3%를, 임대보증금은 1900만원으로 31.7%를 차지했다.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 규모는 3350만원, 신용대출 규모는 620만원인 것으로 조

사됐다. 특히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구는 지난 한해동안 평균 4676만원을 벌고, 3151만원을 지출했다.

한편, 광주·전남의 2014년 3월 현재 자산규모는 광주가 가구당 평균 2억6205만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렀고, 전남은 2억672만원을 차지 전국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순자산과 부채를 보면 광주는 순자산 평균 2억2317만원에 부채가 3887만원을 차지, 비교적 건실한 가계 규모를 보인 반면

전남은 1억7730만원의 전국 최저 순자산에 평균 2942만원의 부채를 저 불안한 자산상태를 나타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24회)		2등보너스
당첨번호		숫자
1 7 19 26 27 35		1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763,729,450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7,755,867	61
3 5개 숫자일치	1,463,220	1,574
4 4개 숫자일치	50,000	78,840
5 3개 숫자일치	5,000	1,309,900

# 광운 新스마트뱅킹 ‘My Cool Bank’ 오픈

광운은행(은행장 김장학)이 기존 스마트폰 뱅킹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스마트뱅킹 시스템인 ‘My Cool Bank’를 오는 18일 전격 오픈한다.

‘My Cool Bank’는 안전함(Safe), 사용 용이성(Easy), 고객 지향적인 상품과 서비스제공(Network),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감성(Emotional)이라는 다섯 가지 ‘SENCE’ 컨셉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은행권 최초로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 ‘My Cool Bank’는 홈 화면과 마이뱅크, 상품몰 등 3개의 메인 화면으로 구성됐다. 특히 로그인 한 번으로 고객이 궁금해 하는 맞춤형 정보(주거래 통장 잔액 및 최근 거래 내용, 월별지출금액, 카드결제금액 등)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제공되는 ‘돈(Money)케어 서비스’는 하나의 통장을 생활비, 저축·보험, 카드결제, 세금, 현금 등

다양한 용도별 통장으로 쪼개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귀찮은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기존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종이 없는 스마트한 통장으로 장수와 자동화기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광운은행은 기존에 크기가 작아 오류가 빈번했던 가상키보드를 국내 최대 크기로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강현 광운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My Cool Bank’는 스마트뱅킹 사용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 많은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뱅킹 이용고객의 편리성 제고와 보안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 한빛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준공예정 : 2015년 5월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림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준공예정 : 2015년 2월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준공예정 : 2015년 3월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주)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